

# 불비용언의 목록 작성 시론

배 주 채 \*

1. 그동안 밝혀진 불비용언의 목록
2. 〈표준국어대사전〉의 불비용언 추출
3.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의 불비용언 활용정보
4. 판정의 기준
5. 불비용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 1) 단어로서의 쓰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2) 용언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3) 활용에 제약이 없는 경우
6. 불비용언으로 인정하는 경우
  - 1) 활용형이 둘 이상이지만 소수의 활용형만 가능한 경우
  - 2) 활용형이 하나이지만 논항을 지배하는 경우
  - 3) 활용형이 하나이지만 '-이'계 파생부사와 관련된 경우
  - 4) 활용형이 하나이지만 다른 의미소가 용언인 경우
7. 마무리

## 1. 그동안 밝혀진 불비용언의 목록

한국어의 用言 중에서 일부는 그 뒤에 붙일 수 있는 語尾가 매우 제한적이다. 즉 한 용언의 활용형들이 모여 형성한 활용계열의 일부 자리만 차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자리가 비어 있다. 이와 같이 활용계열이 불비한 용언을 不備用言이라 부르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용언을 完備用言이라 부르기로 한다.<sup>1)</sup>

\* 가톨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이러한 용언 중 동사를 대개 '不具動詞'라 불러 왔다. '불구동사' 대신 '불완전동사'라는 용어를 쓰는 일도 있다. 용어 문제는 다른 자리에서 논하기로 한다.

오랫동안 불비용언은 매우 적은 수만 알려져 있었다. 다음에서 보듯이 1970년대까지도 불비용언으로 거론되는 단어는 열손가락에 꼽을 정도였다.

최현배(1937/1971: 348-349): 가로다(曰), 닥다(接近), 달다(與), 더불다(與)  
 홍윤표(1977): 가로다(曰), 다리다(率), 닥다(接近), 달다(與), 더불다(與), 바래다  
 (陪行), 아울다(並), 앗다(止)

이 가운데 지금도 불비용언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가로다, 더불다, 테리다’뿐이다.<sup>2)</sup>

나머지 중에서 ‘닥다, 아울다, 앗다’는 요즘 辭典에서 용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닥다’의 유일한 활용형인 ‘다가’는, 〈표〉에 따르면,<sup>3)</sup> 補助詞 ‘다가’, 그리고 動詞 ‘다가가다, 다가들다, 다가붙다, 다가붙이다, 다가서다, 다가세우다, 다가앉다, 다가앉히다, 다가오다’, 名詞 ‘다가채기’의 한 부분으로만 현재 남아 있다. 또 〈표〉는 ‘아울다’의 유일한 활용형 ‘아울러’를 副詞로 처리하고 있다.<sup>4)</sup> 그리고 〈표〉는 ‘앗다’의 명령형에서 온 ‘아서, 아서라’를 感歎詞로 처리하고 있다. 빼앗거나 가로챈다는 뜻의 동사 ‘앗다’를 따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 ‘앗다’와 ‘아서, 아서라’와의 공식적 관련성은 끊어졌다고 보는 것이 〈표〉의 태도이다.

한편 ‘달다’의 둘뿐인 활용형 ‘달라, 나오’는 고영근(1973/1989, 1987/1989), 배주채(2009)를 통해 ‘주다’의 활용형들, 구체적으로는 補充形들임이 밝혀졌다. 그리고 ‘바래다’는 〈표〉에서 활용형이 제약되지 않은 동사로 기술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에 새로운 불비용언들이 확인되었다.

남기심 · 고영근(1985: 128-129/1993: 133-134): 가로다, 관하다, 대하다, 더불다, 테리다, 말미암다, 비롯하다, 위하다, 의하다, 즈음하다

남기심 · 고영근(1985/1993)은 위의 논의에서 불비용언으로 인정한 ‘가로다, 더

2) 홍윤표(1977)의 ‘다리다’는 현재 표준어형이 ‘데리다’이다.

3) 〈표준국어대사전〉 개정판(2008, 웹사전)을 〈표〉로 약칭한다.

4) 홍윤표(1977)은 ‘아울러’를 ‘아울다’의 활용형으로 보고 있으나 ‘아우르다’의 활용형으로 보아야 옳다. 만약 ‘아울다’의 활용형이라면 ‘아울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불다, 데리다' 외에 '관하다, 대하다, 말미암다, 비롯하다, 위하다, 의하다, 즈음하다'를 불비용언으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말미암다, 비롯하다'를 <표>의 처리에 따라 완비용언으로 보고 나머지 '관하다, 대하다, 위하다, 의하다, 즈음하다'를 불비용언으로 인정할 수 있다.

김영욱(1994)와 최형용(2016)은 불비용언의 수를 다음과 같이 대폭 늘렸다(아래의 논의를 통해 불비용언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 뒤에 별표를 붙인다).

김영욱(1994)	최형용(2016)
관하다, 펜하다, 꺽하다, 난장맞다*, 대하다, 더불다, 테리다, 막론하다, 무게실리다*, <sup>5)</sup> 무리없다*, 반하다, 불구하고, 비하다, 빼있다*, 서슴다, 서슴없다*, 성역없다*, 센스없다*, 소신없다*, 수많다, 수없다, 쓸모없다*, 쓸모있다*, 애정없다*, 애정있다*, 여간하다*, 열화같다*, 의하다, 인하다, 중단없다*, 즈음하다, 크나큰다, 특색있다*, 활력없다*, 활력있다*	
가로다, 갖다*, 말미암다*, 설마하다*, 빌어먹다*, 성과없다*, 아우르다*, <sup>6)</sup> 특색없다*	귀담다, 까놓다, 넉넉잡다, 냉그렇다, 더없다, 덩그렇다*, 덮어놓다, 떼맞다, 막다르다, 막되다, 만삭되다, 말라빠지다, 말라죽다, 머나먼다, 머지않다, 발받다, 번갈다, 보다못하다*, 불박다, 생떼같다, 아낌없다, 암만하다, 엇갈다, 연달다, 열띠다, 우라지다, 입바르다, 잊달다*, 자랑차다, 장난삼다, 조비비다, 주되다, 줄잡다, 줄짓다, 중뿔나다*, 진정하다, 짚이다, 참다못하다, 참파랗다, 참嚇다, 철면피하다, 철찾다, 폐일언하다, 피나다, 피비리다, 해묵다, 허구하다, 허위단심하다

<표>에 따르면 이를 가운데 다음 예들은 단어가 아니라甸이므로 불비용언이 될 수 없다.

김영욱(1994), 최형용(2016) 공통: 무게 실리다, 무리 없다, 빼 있다, 성역 없다, 센스 없다, 소신 없다, 쓸모 있다, 애정 없다, 애정 있다, 열화 같다, 중단 없다, 특색 있다, 활력 없다, 활력 있다

김영욱(1994)만: 성과 없다, 특색 없다

최형용(2016)만: 보다 못하다

5) 김영욱(1994)는 基本活用形(용언에 어미 '-다'를 붙여 그 용언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하는 활용형)을 '무게실다'로 표시하고 있지만 '무게실린'이라는 활용형을 문제 삼았으므로 목록에 '무게실리다'를 수록하는 것이 옳다. 한편 최형용(2016)은 불비용언의 모든 예를 활용형으로만 표시하고 있으며 이 단어도 '무게실린'으로 제시했다.

6) 각주 4)에서 본 바와 같이 '아우르다'는 홍윤표(1977)에서 '아울다'로 잘못 제시한 바 있다.

또 ‘난장맞다, 갖다, 설마하다, 빌어먹다, 아우르다’는 다음과 같은 〈표〉의 처리에 따라 불비용언 목록에서 제외한다.

난장맞을<sup>관</sup><sup>김</sup>, 갖은<sup>관</sup>, 설마하니<sup>문</sup>, 빌어먹을<sup>관</sup>, 아울러<sup>문</sup>

그리고 다음 단어들은 〈표〉에서 완비용언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불비용언에서 제외한다.

서슴없다, 쓸모없다, 여간하다, 말미암다, 덩그렇다, 잇달다, 중뿔나다

한편 한송화(1997)은 활용에 制約이 있는 동사들을 ① “불구동사”, ② “동사의 굳은형”, ③ “동사의 굳은형”이 되어 가는 것, ④ 일부 활용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누어 논의했다.<sup>7)</sup>

한송화(1997)의 ‘활용에 제약이 있는 동사’: ① 갖나다, 거들뜨다, 관하다, 꼬느다, 끄집다, 넉넉잡다, 눈여기다, 다그다, 대하다, 더블다, 데리다, 들치다, 마지못하다, 말미암다, 무릅쓰다, 번갈다, 불박다, 비롯하다, 비하다, 얇잡다, 엊갈다, 움키다, 인하다, 전후하다, 죽치다, 즈음하다, 짚다, 차치하다, 통틀다, ② 가지다(원리를 가지고), 건너다(한 집 건너), 기하다, 두다(그런 일들을 두고), 둘러싸다, 따르다(관점에 따라), 보다(선생님을 보고 형님이라 부르시길래), 앞서다(앞서 언급한 대로), 지나가다(지나가는 말로), 지나다(지난 3월), ③ 보다(시간 봐서), 앞서다(...에), 떠나다(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④ 걸다(생사를 걸고), 걸치다(오랜 기간에 걸친), 부치다, 향하다

한송화(1997)의 처음 거론한 단어: ① 갖나다, 거들뜨다, 꼬느다, 끄집다, 넉넉잡다, 눈여기다, 들치다, 마지못하다, 무릅쓰다, 번갈다, 불박다, 얇잡다, 엊갈다, 움키다, 전후하다, 죽치다, 짚다, 차치하다, 통틀다, ② 가지다, 건너다, 기하다, 두다, 둘러싸다, 따르다, 보다, 앞서다, 지나가다, 지나다, ③ 보다, 앞서다(...에), 떠나다, ④ 걸다, 걸치다, 부치다, 향하다

7) 한송화(1997)의 “동사의 굳은형”은 기본적으로 완비동사인 다의동사가 일부 의미 용법에서 가진 제한된 활용형을 가리킨다. 아래 6장의 4)에서는 이러한 용언을 ‘부분 불비용언’이라 부른다.

이 중에서 다음 단어들은 〈표〉에서 “((‘가지고’ 꼴로 쓰여))” 등의 형식으로 활용상의 제약을 기술하고 있으므로 일단 불비용언으로 처리한다.

가지다, 넉넉하다, 눈여기다, 두다, 따르다, 마지못하다, 보다, 불박다, 엇갈다, 지나가다

이 밖에 ‘갓난 동생, 갓난 딸’은 〈표〉에 따르면 ‘갓 난 동생,갓 난 딸’이 되어야 하므로 ‘갓나다’는 용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②의 ‘앞서다(앞서 언급한 대로)’는 〈표〉의 부사 ‘앞서’에 해당하므로 불비용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상의 연구들이 각각 새롭게 밝혀낸 불비용언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확인된 불비용언은 모두 70개이다.

연구	불비용언	개수
최현배(1937/1971)	가로다, 더불다	2
홍윤표(1977)	데리다	1
남기심 · 고영근 (1985/1993)	관하다. 대하다. 위하다. 의하다. 즈음하다	5
김영옥(1994)	괜하다. 꺽하다. 막론하다. 반하다. 불구하고다. 비하다. 서슴다. 수많다. 수없다. 인하다. 크나크다	11
한송화(1997)	가지다. 넉넉하다. 눈여기다. 두다. 따르다. 마지못하다. 보다. 불박다. 엇갈다. 지나가다	10
최형용(2016)	귀담다. 까놓다. 냉그렇다. 더없다. 덮어놓다. 때맞다. 막다르다. 막되다. 만삭되다. 말라빠지다. 말라죽다. 머나蘖다. 머지않다. 발밭다. 번갈다. 생때같다. 아낌없다. 암만하다. 연달다. 열띠다. 우라지다. 입바르다. 자랑차다. 장난삼다. 조비비다. 주되다. 출꼽다. 출짓다. 진정하다. 짚이다. 참다못하다. 참파랗다. 참嚇다. 철면피하다. 철찾다. 폐일언하다. 피나다. 피비리다. 해묵다. 허구하다. 허위단심하다	41

이제 바야흐로 電子辭典 시대를 맞아 불비용언을 網羅하여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전보다 훨씬 더 수월해졌다. 그러나 각 용언의 활용양상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불비용언 여부를 판정하는 일이 간단치 않은 경우도 있어서 이 작업을 단숨에 마칠 수는 없다. 그렇지만 情報技術에 힘입어 어떻게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은 당장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전

에 근거하여 불비용언을 망라해 모으는 작업을 試圖한다. 그 과정에서 불비용언의 완전한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연구가 이어져야 할지가 鮮明해지리라 기대한다.

## 2. <표준국어대사전>의 불비용언 추출

불비용언을 망라해 모으는 확실한 방법은 국어대사전에 수록된 용언의 활용양상을 하나씩 검토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작업량이 너무 많아서 장기간 수행해야 하는 短點이 있다. 次善策은 전자사전 형태의 국어대사전이 제공하는 각 용언의 활용정보로부터 불비용언을 기계적으로抽出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어대사전의 용언활용 기술이 정확하다고 前提한 방법이다. 우리는 이 방법을 채택하고자 한다. 국어대사전 중에서 <표준국어대사전> 개정판(2008, 웹사전)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 사전의 미비한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 이하 <고>로 약칭)도 참고한다.

<표>는 활용계열의 불완전성을 ‘문법정보란’에서 다음과 같이 ‘꼴’이 들어 있는 표현으로 제시하고 있다.

**괜하다** 圖 ((주로 ‘괜한’ 꼴로 쓰여))

**더불다** 圖 ((‘더불어’ 꼴로만 쓰여))

**관련하다** 圖 【…과】【…에】((‘…과’와 함께 쓰일 때는 주로 ‘관련하여’, ‘관련한’ 꼴이 쓰인다))

그러므로 웹사전 <표>의 ‘자세히 찾기’에서 문법정보란에 ‘꼴’을 포함한 표제어를 檢索하면 불비용언을 모두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찾아진 용언 표제어는 ‘가경하다(可驚--)’부터 ‘환언하다(換言--)’까지 모두 145개이다.<sup>8)</sup> 이 가운데 ‘무방하다(無妨--)’는 문법정보란에 “‘-어도’ 꼴에 후행하여”로 표

8) 2017년 1월 10일 검색 결과=2018년 1월 9일 검색 결과.

시되어 있지만 이 문법정보는 앞말의 활용이 제약된다는 뜻이지 ‘무방하다’의 활용이 제약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불비용언 목록에서除外한다.<sup>9)</sup> 또 北韓語 표제어 7개도除外한다.<sup>10)</sup> 145개에서 이 8개를 뺀 결과가 다음 137개 표제어이다.<sup>11)</sup>

가경하다(可驚) 가공하다03(可恐) 가괴하다(可怪) 가교하다01(可教) 가기하다02(可期) 가로다 각설하다02(却說) 간단없다(間斷) 갈데없다 강근하다(強近) 관련하다(關聯/關連) 관하다02(關) 괜하다 귀담다 극상하다(極上) 급기시하다(及其時) 기나길다 까놓다 껴묻다01 꽂답다 끊임없다 끅하다 난데없다 넉넉깝다 눈여기다 늘씬하다01 다직하다 달다05 대다01 더불다 더없다 덩그렇다 덩달다 덮어놓다 동그맣다 동일하다(同一) 때다04 때맞다 때맞추다 때아니다 마지못하다 마침맞다 막다르다 막되다 막론하다(莫論) 만삭되다(滿朔) 말라죽다 말하다 머나멸다 머지않다 모르다 몰라뵙다 무단하다(無斷) 무작정하다(無酌定) 무정처하다(無定處) 무조건하다(無條件) 물론하다(勿論) 미구하다01(未久) 밤새다 배다르다 배집다 벼젓하다 번질나다 볼먹다 볼메다 부치다02 불문곡절하다(不問曲折) 불문곡직하다(不問曲直) 불티나다 불박다 비근하다(卑近) 빛바래다 뻔질나다 뻔쩔나다 사사롭다(私私) 생때같다(生) 서슴다 소정되다01(所定) 손색없다(遜色) 수많다(數) 수없다(數) 심심찮다 심심하다03(甚深) 쓸리다03 아낌없다 앉다 암만하다 앞다투다 앞지르다 열추잡다 엇갈다 여북하다 여하하다(如何) 연달다(連) 연잇다(連) 열띠다(熱) 영광되다(榮光) 예기하다(豫期) 오사하다01(誤死) 오죽하다 올목갖다 우라지다 위시하다02(爲始) 의하다01(依) 이르다02 잇다01 자랑차다 잘다 장난삼다 제하다04(際) 조비비다 주되다(主) 주살나다 주요하다(主要) 줄짓다 즈음하다 진정하다01(真正) 짚이다 참다못하다 참답다 참따랗다 참땋다 철면피하다(鐵面皮) 철찾다 치다10 특정하다(特定) 폐일언하다(蔽一言) 피나다 피맺히다 피어리다 한없다(限) 해묵다 허구하다01(許久) 허옇다 허위단심하다 현행하다01(現行) 환인하다(換言)

그런데 다음 표제어 17개도 문법정보란에 ‘꼴’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위의 검색으로는 찾아지지 않는다.<sup>12)</sup>

9) 문법정보란에 ‘꼴’을 포함한 용언 표제어로 검색된 145개 중에서 ‘꼴로’를 포함한 것은 143개이다. 나머지 둘은 ‘꼴이’를 포함한 ‘관련하다’와 ‘꼴에’를 포함한 ‘무방하다’이다.

10) 북한어 표제어 7개는 다음과 같다. 가분하다04(可憤--), 겉묻다, 결묻다, 례하다01(例--), 백사불구하다(百事不拘--), 썩어지다, 피타다.

11) 시각적 편의와 지면 절약을 위해 항목 사이의 쉼표와 원어란의 불임표(-)를 생략한다.

12) 따라서 ‘자세히 찾기’ 기능을 이용해 <표>에 실린 모든 불비용언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

### 기존 연구들에서 불비용언임을 확인한 단어

- 가지다 1[1]⑧ ((‘가지고’ 꿀로 쓰여))  
 대하다02(對--) ③ ((‘대한’, ‘대하여’ 꿀로 쓰여))  
 냉그렇다 ((주로 ‘냉그렇게’ 꿀로 쓰여))  
 테리다 ((‘테리고’, ‘테리려’, ‘테려’ 꿀로 쓰여))  
 두다03 1[3]⑦ ((주로 ‘두고’ 꿀로 쓰여))  
 따르다01 [2]② ((흔히 ‘따라(서), 따른, 따르면’ 꿀로 쓰여))  
 말라빠지다 ((주로 ‘말라빠진’ 꿀로 쓰여))  
 반하다03(反--) ① ((주로 ‘반하여’ 꿀로 쓰여))  
 발밭다((흔히 ‘발밭게’ 꿀로 쓰여))  
 보다01 1[1]㉕ ((주로 ‘보고’ 꿀로 쓰여))  
 비하다(比--) ② ((‘-에 비하여’, ‘-에 비해(서)’, ‘-에 비하면’ 구성으로 쓰여))  
 ③((‘비하건대’ 꿀로 쓰여))  
 인하다01(因--) ① 【…으로】((흔히 ‘인하여’, ‘인한’ 꿀로 쓰여))  
 출잡다 ((흔히 ‘출잡아’ 꿀로 쓰여))  
 지나가다 [1]③ ((주로 ‘지나가는’ 꿀로 쓰여))  
 피비리다 ((주로 ‘피비린’의 꿀로 쓰여))

### 기존 연구들에서 불비용언임을 확인하지 않은 단어

- 말라비틀어지다 ②((주로 ‘말라비틀어진’ 꿀로 쓰여))  
 모시다 [1]②((‘모시고’, ‘모시려’, ‘모셔’ 꿀로 쓰여))

한편 기존 연구들에서 불비용언임을 확인한 다음 표제어 5개는 문법정보란에 ‘꿀’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불비용언의 가능성성이 높다.

번갈다: ‘꿀로 쓰여’ 표현 없음. 용례에 ‘번갈아’만 등장.

불구하다02: “-에도/-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으로 쓰여”, “-음에도” 대신에 ‘-ㄴ데도’가 쓰이기도 한다”

위하다01(爲--) : ‘꿀로 쓰여’ 표현 없음. 意味素 ①, ③의 용례에 ‘위해’, 위해서, 위한’만 등장.<sup>13)</sup>

입바르다: “주로 관형사형으로 쓰여”. 용례에 ‘입바른’만 제시.

크나크다: ‘꿀로 쓰여’ 표현 없음. 용례에 ‘크나큰, 크나크신’만 등장.

라는 우리의 기대에 금이 간다.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지금으로서는 이렇게라도 작업을 하는 것이 뒷날의 연구를 위해 의미가 있다고 본다.

13) ‘의미소’는 다의어의 개별 의미를 가리키는 용어로 쓴다.

그리고 다음의 ‘가라사대’는 기준 연구에서 불비용언으로 거론된 ‘가로다’와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표제어이다.

가라사대 𩷇 (문어체로) ‘말씀하시되’의 뜻으로 쓰이는 말. ‘가로되’보다 높임의 뜻을 나타낸다.

그래서 〈표〉의 ‘자세히 찾기’ 기능으로 찾아낸 137개에 위의 23개를 더해 총 160개의 표제어를 검토하여 불비용언 與否를 判定한다.

### 3.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의 불비용언 활용정보

2장에서 〈표〉를 바탕으로 뽑은 160개 표제어가 진정한 불비용언인지 확인하기 위해 〈고〉의 풀이를 참고한다. 〈표〉와 〈고〉의 풀이 가운데 불비용언 판단에 필요한 정보의 핵심만 아래 〈표 1〉에 보인다. 불비용언 여부를 판정한 결과를 표의 맨 오른쪽 ‘판정’ 열에 표시한다. 불비용언은 ‘○’로, 불비용언이 아닌 표제어는 빙칸으로 두었다. 판정의 根據는 4장~6장에서 논한다.

〈표 1〉에서 왼쪽 세 열(표제어, 품사, 활용형)은 〈표〉의 것이다. ‘활용형’ 열에는 文法情報欄에 가능한 활용형으로 제시된 것들을 보인다. 〈표〉의 활용형 중 소괄호 안의 것은 문법정보란에 제시되지 않은 것 중에서 用例에 제시된 것이다. 한편 〈고〉의 풀이가 기본적으로 〈표〉의 문법정보란 표시와 같은 경우 등호 (=)로만 표시하고 풀이가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를 간단히 적는다.

〈표〉는 용언 표제어의 活用情報欄에 기본적으로 ‘-어’ 활용형과 ‘-으니’ 활용형을 제시하고 불비용언 표제어의 활용정보란은 비워 두었다. 문법정보란에 제시하는 소수의 활용형으로만 쓰이는 용언에 대해 ‘-어’ 활용형과 ‘-으니’ 활용형을 기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穩當한 處事이다.<sup>14)</sup>

14) 문법정보란에서 활용상의 제약을 기술한 표제어 ‘덩그렇다, 동그맣다, 배다르다, 불먹다’

〈표〉가 불비용언 표제어의 문법정보란에서 가능한 활용형을 제시하는 방식은 다음 네 가지이다. 이 가운데 ‘주로’나 ‘흔히’를 제시한 ②형, ③형이 가장 많다. 〈고〉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②형이고 나머지 소수는 ①형이다.

- ① 간단-없다(間斷--) 𩔗 ((‘간단없는’ 꽂로 쓰여))
- ② 괜하다 𩔗 ((주로 ‘괜한’ 꽂로 쓰여))
- ③ 난데없다 𩔗 ((흔히 ‘난데없는’ 꽂로 쓰여))
- ④ 더불다 𩔗 ((‘더불어’ 꽂로만 쓰여))

〈표 1〉에서는 ②형, ③형의 경우에 아무 표시를 달지 않고 활용형만 보였고 ①형, ④형의 경우에는 ‘간단없는!’과 같이 활용형 뒤에 느낌표(!)를 달았다. 또 〈고〉의 문법정보란에 활용에 대한 제약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불비용언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것은 ‘※제약 없음’으로 표시했다. 또 〈표〉와 〈고〉에서 일부 意味素에 대해서만 활용정보를 제시한 경우에는 의미소 번호 뒤에 내용을 표시했다.

〈표 1〉 〈표〉와 〈고〉의 불비용언 활용정보

표제어	품사	활용형	〈고려대〉	판정
가경하다	형	가경할	=	
가공하다03	형	가공할	=	
가괴하다	형	가괴할	=	
가교하다01	형	가교할	=	
가기하다02	형	가기할	※표제어 없음	
가라사대	동	-		
가로다	동	가로되!, 가론!	가로되, 가론	○
가지다	동	1[1]⑧가지고!	[타]1]⑥=	○
각설하다02	동	각설하고	=	
간단없다	형	간단없는!	간단없는	○
갈데없다	형	갈데없는	=	○
강근하다	형	강근한	=	
관련하다	동	관련하여, 관련한, (관련해서)	※제약 없음	○
관하다02	동	관하여, 관한, (관해서)	관하여!, 관한!	○

의 활용정보란에 일반적인 활용형들 ‘덩그레, 덩그러니, 덩그렇소[--러쏘]’, ‘둥그매, 둉그마니, 둉그맣소[--마쏘]’, ‘-달라, -다르니’, ‘-먹어, -먹으니’가 제시되어 있다. 편집상의 誤謬로 보인다.

괜하다	형	괜한	=	○
귀답다	동	귀답아	= 귀답아. 귀답지	○
극상하다	형	극상해야	=	
급기시하다	동	급기시하여	※표제어 없음	
기나길다	형	기나긴	=	
까놓다	동	까놓고	[자타]까놓고!	
꺼문다01	동	꺼문어	=	
꽃답다	형	꽃다운. (꽃답고)	=	
끊임없다	형	끊임없는, (끊임없고)	※제약 없음	
꺽하다	동	꺽해야. (꺽할)	꺽해야야	
난데없다	형	난데없는, (난데없던, 난데없게)	=	○
넉넉잡다	동	넉넉잡고!. 넉넉잡아!	넉넉잡고. 넉넉잡아	○
눈여기다	동	눈여겨. (눈여김)	=	○
늘씬하다01	형	늘씬하게!	늘씬하게	
다직하다	형	다직하면. 다직해서. 다직해야	=	○
달다05	동	달라!. 나오!	달라. 나오	
대다01	동	1[2]대고	[자]①대고	○
		1[3]②대. 대면. (델)	[태]②대. 대면. 델	
대하다02	동	③대한!, 대하여!	=	○
댕그렇다	형	①②댕그렇게	댕그렇게. 댕그라니 ※댕그라니	○
더불다	동	더불어!	=	○
더없다	형	더없는	=	
딩그렇다	형	딩그렇게	=	
덩달다	동	덩달아. 덩달아서	덩달아!. 덩달아서!	○
덮어놓다	동	덮어놓고!	①덮어놓고 ②※제약없음	
테리다	동	테리고, 테리려, 테려	=	○
동그맣다	형	동그맣게	=	
동일하다	형	②동일한!	※제약 없음	
두다03	동	1[3]⑦두고	[타]①[4]=	○
		[2]②따라(서), 따른, 따르면		
따르다01	동	따어, 때	=	○
때다04	동	때맞다	=	
때맞추다	동	때맞추어	=	
때아니다	형	때아닌, 때아닌게	=	○
마지못하다	형	마지못해. (마지못해서, 마지못한)	마지못하여, 마지못한	○
마침맞다	형	마침맞게. 마침맞은. (마침맞아)	=	○
막다르다	형	막다른	=	
막되다	형	막된, 막되게. (막되고)	=	○
막론하다	동	막론하고. (막론한)	=	○
만삭되다	동	만삭된. (만삭되기)	=	○
말라비틀어지다	동	②말라비틀어진	=	○
말라빠지다	동	②말라빠진	=	○
말라죽다	동	말라죽은, 말라죽을	=	○

말하다	동	④말하자면!	말하자면	
머나먼다	형	머나먼	=	
머지않다	형	머지않아	머지않아	○
모르다	동	④모르게, 모르는	※제약 없음	
모시다	동	1②모시고, 모시려, 모셔	※제약 없음	
몰라pedia	동	몰라pedia	※표제어 없음	
무단하다	형	무단한	=	
무작정하다	형	무작정하고, (무작정한)	=	○
무정처하다	형	무정처하고!	=	
무조건하다	형	무조건하고, (무조건한)	=	○
물론하다	동	물론하고	=	○
미구하다01	형	미구하여	=	
반하다03	동	반하여	①반하여, 반해 ②※제약 없음	○
발발다	형	①발발게	※활용정보 없음. 제약 없음	
밤새다	동	밤새도록	※제약 없음	
배다르다	형	배다른	=	○
배꼽다	동	배꼽고	=	○
버젓하다	형	①, ②버젓하게, 버젓한 ③=	①= ②버젓하게 ③=	○
번갈다	동	(번갈아)	번갈아, 번갈아서	○
번질나다	형	번질나게	=	
보다01	동	1[1]⑤보고	1[1]⑥※제약 없음	○
볼먹다	형	볼먹은!	=	
볼매다	형	볼멘!	볼멘	
부쳐다02	동	③부쳐, 부치는	④= ⑤=	○
불구하다02	동	불구하고!	불구하고	○
불문곡절하다	동	불문곡절하고	=	○
불문곡직하다	동	불문곡직하고	=	○
불티나다	동	불티나게, (불티나듯)	=	○
붙박다	동	붙박아, (붙박았다)	=	○
비근하다	형	비근한	=	
비하다	동	②비하여!, 비해(서)!, 비하면! ③비하건대!	②①비하여!, 비해(서)!, 비하면! ②비해(서)! ④비하건대!, 비건대!	○
빛바래다	형	빛바래	=	
뻔질나다	형	뻔질나게, (뻔질나서)	=	○
뻔쩔나다	형	뻔쩔나게	=	
사사롭다	형	사사로운, (사사롭게)	사사로운, 사사롭게	○
생때같다	형	생때같은	=	
서슴다	동	서슴지, (서슴을)	=	○
소정되다01	동	소정된	=	

손색없다	형	손색없는, (손색없어)	=	○
수많다	형	수많은	=	○
수없다	형	수없는, (수없던)	=	○
심심찮다	형	심심찮게, (심심찮은)	심심찮게, 심심찮은	○
심심하다03	형	심심한	=	
쓸리다03	동	쓸려	※제약 없음	○
아낌없다	형	아낌없는	=	○
앉다	동	앉아, 앉아서	※제약 없음	○
암만하다	동	암만해도	①암만하여도, 암만해도 ②암만하여도, 암만해도	
앞다퉈다	동	앞다퉈	=	
앞지르다	동	앞질러!	※제약 없음	○
얼추잡다	동	얼추잡아	=	○
엇갈다	동	엇갈아	=	○
여북하다	형	여북하면, 여북해야, (여북해), (여북하랴)	=	○
여하하다	형	여하한	=	
연달다	동	연달아	=	
연잇다	동	연이어, 연이은, (연이어서), (연이으므로)	※제약 없음 연이어	○
열띠다	형	열띤, (열띠게)	=	○
영광되다	형	영광된	=	
예기하다	동	예기치, (예기하고)	예기하지, 예기치	○
오사하다01	동	오사할	=	
오죽하다	형	오죽하여, 오죽하면, 오죽하랴, (오죽해야, 오죽했으면, 오죽할까)	=	○
올목갖다	형	올목갖게	=	
우라지다	동	우라질!, 우라지게!	=	○
위시하다02	동	위시하여, 위시한	=	○
위하다01	동	①(위해, 위해서) ③(위해, 위해서, 위한)	※제약 없음	○
의하다01	동	의한, 의하면, 의하여	의한, 의하면, 의하여, 의해(서)	○
이르다02	동	이르기를, 이르되	=	○
인하다01	동	인하여, 인한, (인할, 인함)	①= ②인하여	○
입바르다	형	※관형사형 <sup>15)</sup> (입바른)	입바른	
잇다01	동	이어, 이어서	=	○
자랑차다	형	자랑찬	=	
잘다	형	잔	※제약 없음	
장난삼다	동	장난삼이, 장난삼아서	=	○
제하다04	동	제하여	=	○
조비비다	동	조비비듯, (조비비던)	= <sup>16)</sup>	○
주되다	동	주된, 주되는	=	

주살나다	형	주살나게	=	
주요하다	형	주요한	=	○
줄잡다	동	②줄잡아. (줄잡아서, 줄잡으면)	줄잡아	○
줄짓다	동	줄지어. (줄지은)	=	○
즈음하다	동	즈음하여, 즈음한. (즈음해서)	=	○
지나가다	동	[1]③지나가는	[자]⑤? ※제약 없음 <sup>17)</sup>	○
진정하다01	형	진정한	=	
짚이다	동	짚이는. (짚이지)	=	○
참다못하다	동	참다못한, 참다못해	=	○
참답다	형	참다운, 참답게	=	○
참따랗다	형	참따랗게	= ※참따랗게 [부]	
참땅다	형	참땅게	= ※참땅게 [부]	
철면피하다	형	철면피한	※제약 없음	
철찾다	동	철찾아	= <sup>18)</sup>	
치다10	동	치면, 친다면	=	○
크나크다	형	(크나큰, 크나크신)	※제약 없음	○
특정하다	형	특정한	=	
폐일언하다	동	폐일언하고	=	
괴나다	동	괴나게, 괴나는	=	○
괴맺하다	형	괴맺힌	=	
괴비리다	형	②괴비린	=	○
괴어리다	형	괴어린	=	
한없다	형	한없는	=	
해복다	동	해복은	①= ②=	
허구하다01	형	허구한	=	
허옇다	형	[1]③허옇게 [2]허옇게	③=	○
허위단심하다	동	허위단심하고	=	
현행하다01	동	현행하는	[자]= [태]※제약 없음	
환언하다	동	환언하면. (환언할)	※제약 없음	○

- 15) 문법정보란에 “((주로 관형사형으로 쓰여))”로 풀이했다.
- 16) <고>는 동사 ‘조비비다’를 표제어로 실은 점이 <표>와 같으나 <표>와는 달리 명사 ‘조1’의慣用句로 ‘조 비비듯 한다’도 제시했다. 같은 말을 한 단어로도 풀이하고 두 단어로도 풀이한 점에서 일관성을 끊은 기술이다.
- 17) 이 물음표는 <고>의 해당 의미소가 ‘자]⑤’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다는 뜻이다. 어떻든 <고>는 ‘지나가다’에 대해 활용상의 제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 18) <고>는 동사 ‘철찾다’를 표제어로 실은 점이 <표>와 같으나 <표>와는 달리 명사 ‘철1’의慣用句로 ‘철(을) 찾다’도 제시했다. 이렇게 하면 <고>의 예문 “언니는 철 찾아 옷을 사입었다.”라는 말이 있을 때 ‘철 찾아’가 옳은지 ‘철찾아’가 옳은지 말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긴다. 둘 다 옳다면 각주 16)에서 본 ‘조비비다’의 경우처럼 같은 말을 한 단어로

## 4. 판정의 기준

〈표 1〉에 적용한 불비용언 판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2〉 불비용언 판정의 기준

성격	불비용언 여부
(1) 단어로서의 쓰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2) 용언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용언으로서의 지위가 불분명한 경우 • 용언이 아닌 품사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	×
(3) 활용에 제약이 없는 경우 • 다양한 활용형이 가능한 경우 • 표제어를 수정하면 활용에 제약이 없는 경우 • 의미소를 수정하면 활용에 제약이 없는 경우	
(4) 활용에 제약이 있는 경우 • 활용형이 둘 이상이지만 소수의 활용형만 가능한 경우 <sup>19)</sup> • 활용형이 하나이지만 논항을 지배하는 경우 • 활용형이 하나이지만 '-이'게 과생부사를 가지는 경우 • 활용형이 하나이지만 다른 의미소가 용언인 경우	○

불비용언으로 인정하지 않는 (1)~(3)은 5장에서, 불비용언으로 인정하는 (4)는 6장에서 논의한다.

도 풀이하고 두 단어로도 풀이한 일관성 없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 19) 활용형이 하나인가 둘 이상인가를 따질 때는 어떤 두 형태가 형태론적으로 동일한 활용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반하여’와 ‘반해’는 ‘반하-어’라는 똑같은 形態論的 構造를 가지고 있으므로 같은 활용형으로 친다. ‘앞다투어’와 ‘앞다퉈’도 ‘앞다투-어’라는 똑같은 형태론적 구조를 가진 한 가지 활용형이다. 그러나 ‘-어’ 활용형과 ‘-어서’ 활용형은 서로 다른 활용형이다. 즉 ‘반해’와 ‘반해서’는 서로 다른 활용형이다. 〈표〉는 ‘비하다②’의 가능한 활용형을 ‘비하여’, ‘비해(서)’, ‘비하면’으로 제시했다. 이론적 관점에서는 ‘비하여’, ‘비하여서’, ‘비하면’ 또는 ‘비해’, ‘비해서’, ‘비하면’의 3개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또 최형용(2016: 251)은 ‘장난삼아(서)’와 ‘줄잡아(서)’를 어미 하나씩만 결합한 예로 제시하고 있지만 ‘장난삼아’, ‘장난삼아서’와 ‘줄잡아’, ‘줄잡아서’와 같이 어미가 둘씩 결합한다고 기술해야 옳다. 또 최형용(2016: 253)은 ‘관하다’, ‘대하다’, ‘의하다’, ‘인하다’, ‘즈음하다’의 활용형이 ‘관하여’, ‘관한’ 등 두 가지씩만 가능한 것으로 기술했다. 실제로는 ‘관해’, ‘관해서’, ‘관한’ 등 세 가지씩이 가능하다.

## 5. 불비용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 1) 단어로서의 쓰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가기하다02, 급기시하다

‘가기하다02’와 ‘급기시하다’에 대한 〈표〉의 기술은 다음과 같다.

**가기-하다02** (可期--) [가 : ---] 『국』 ((주로 ‘가기할’ 꼴로 쓰여)) 기대하거나 기약할 만하다.

**급기시-하다** (及其時--) [-끼---] 『국』 ((주로 ‘급기시하여’ 꼴로 쓰여)) 그때에 다르다.

〈고〉는 이 두 단어를 표제어로 삼지 않았다. 현대국어의 약 1억 어절 분량의 말뭉치에서 쓰임이 확인되지 않은 단어를 표제어로 삼지 않는다는 〈고〉의 편찬태도와 〈표〉에 아무 用例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우리의 직관으로 도 그 쓰임을 전혀 그려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두 단어는 현대국어에서 幽靈語가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유령어를 불비용언으로 인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러므로 이 둘을 불비용언 목록에서 제외한다.

### 2) 용언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1) 용언으로서의 지위가 불분명한 경우

때다04

‘때다04’에 대한 〈표〉와 〈고〉의 기술은 다음과 같다.

〈표〉 **때다04** [때 : -] 『국』 ((주로 ‘때어’, ‘때’ 꼴로 쓰여)) (속되개) 죄지은 사람이 잡히다. ¶교도소에 때어 들어가다 / 그는 도둑질하다가 때 들어갔다.

〈고〉 때다2 [때:-] [+때\_다] [자동사] [(圜이)] ((주로 ‘때어’, ‘때’의 꼴로 쓰여) (도독이) 달아나지 못하게 잡하다.

‘때어’와 ‘때’는 각각 본말과 준말로서 形態論的 構造가 똑같이 ‘때-어’인 동일한 활용형이다. 즉 ‘때다04’는 ‘때어/때’라는 한 가지 활용형만 가능한 용언인 셈이다. 두 사전의 풀이를 보면 ‘때다04’는 ‘때어 들어가다’라는 構成 외에 다른 어떤 쓰임이 가능한지 알 수 없다. 다른 쓰임은 물론 ‘때어 들어가다’조차도 우리의 감각에는 낯설다. 그래도 ‘때어 들어가다’라는 표현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합리적인 처리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때어/때’를 副詞로 인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때어들어가다/때들어가다’를 動詞로 인정하는 것이다. 둘 중 어느 방안이 나은지에 대한 판단은 보류한다. ‘때다04’를 독립된 동사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래서 불비용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만 확인해 두고자 한다.

## (2) 용언이 아닌 품사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

가경하다. 가공하다. 가괴하다. 가교하다. 각설하다. 강근하다. 극상하다. 기나길다. 까놓다. 깍하다. 늘씬하다01. 뎅그렇다. 동그랗다. 때맞다. 때맞추다. 막다르다. 말하다. 머나멀다. 무정처하다. 미구하다. 발발다. 밤새다. 번질나다. 뻔쩔나다. 볼먹다. 볼메다. 비근하다. 빛바래다. 생때같다. 소정되다. 심심하다. 암만하다. 앞다투다. 여하하다. 연달다. 영광되다. 오사하다. 올목갖다. 자랑차다. 주되다. 주살나다. 진정하다. 침따랗다. 침땡다. 철면피하다. 철찾다. 특정하다. 폐일언하다. 피맺히다. 피어리다. 해룩다. 허구하다. 허위단심하다. 현행하다

〈표〉에 따르면 이 용언들의 가능한 활용형은 각각 하나씩이다. 그 활용형들은 크게 冠形詞形과 副詞形으로 나누어진다. 어미별로 이들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관형사형

- 은: 강근한, 기나긴, 막다른, 머나먼, 볼먹은, 볼멘, 비근한, 빛바랜, 생때같은, 소정된, 심심한, 여하한, 영광된, 자랑찬, 주된, 진정한, 철면피한, 특정한, 피맺힌, 피어린, 해룩은, 허구한
- 을: 가경할, 가공할, 가괴할, 가교할, 오사할
- 는: 현행하는

### 부사형

- 어: 때맞추어, 미구하여, 앞다투어, 연달아, 철찾아
- 고: 각설하고, 까놓고, 무정처하고, 폐일언하고, 허위단심하고
- 게: 늘씬하게, 덩그렇게, 동그랗게, 때맞게, 벌밭게, 번질나게, 뻔찔나게, 올목갓게, 주실나게, 참따랗게, 참뚱게
- 어도: 암만해도
- 어야: 극상해야, 꺽해야
- 으면: 말하자면
- 도록: 밤새도록

어떤 용언이 관형사형 한 가지만 가능하다면 그 관형사형을 冠形詞로 인정하고, 부사형 한 가지만 가능하다면 그 부사형을 副詞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예를 들어 〈표〉에서 冠形詞 및 感歎詞 표제어로 수록한 ‘떡을 할’은 동사 ‘떡을 하다’의 관형사형으로 처리할 법도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또 冠形詞 및 感歎詞 표제어로 수록한 ‘염병할’은 동사 표제어로 수록한 ‘염병하다(染病--)(“염병을 앓다.”로 뜻풀이됨)’의 관형사형 ‘염병할’로부터 온 것이 틀림없다. 〈표〉의 표제어 ‘염병할’의 뜻풀이 “‘염병을 앓을’이라는 뜻으로, 매우 못마땅할 때 육으로 하는 말.”이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렇지만 〈표〉는 ‘염병할’을 동사 ‘염병하다’와 分離하여 독립된 단어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論理를 따르면, ‘가공할(可恐-)'이 두려워할 만하다는 뜻의 형용사 ‘가공하다(可恐--)'에서 유래한 것이 분명하지만 ‘가공하다’의 다른 활용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형용사 ‘가공하다’ 대신 관형사 ‘가공할’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표〉의 예문 셋 중 둘과 〈고〉의 예문 둘 중 하나는 ‘가공할 만하다’라는 표현을 보이고 있다. 이 ‘가공할 만하다’의 ‘가공할’은 관형사로 보기 어렵다.

〈표〉 새로운 무기는 가공할 만한 위력을 지녔다. / 언론의 위력은 가공할 만하다.  
 〈고〉 그는 가공할 만한 판단력과 실력으로 우리나라 축구를 대표할 최고의 선수로 꼽힌다.

‘가공하다(可恐--)'는 ‘두려워할 만하다’를 뜻한다.<sup>20)</sup> 즉 이 단어 속에 ‘만하다’

---

20) 〈표〉의 뜻풀이는 “두려워하거나 놀랄 만하다.”이고, 〈고〉의 뜻풀이는 “(힘이) 두려워할

의 의미('可'의 의미)가 들어 있다. 그러므로 '가공할 만하다'는 '두려워할 만할 만하다'라는 이상한 표현으로 번역된다. 이것은 '가공할 만하다'가 '가공하다'의 誤用임을 뜻한다. 따라서 위의 사전 예문들에서 '가공할 만한'은 '가공할'로 고치고, "언론의 위력은 가공할 만하다."는 "언론의 위력은 두려워할 만하다."로 고쳐야 마땅하다. 결국 '가공할'을 冠形詞로 인정하고 형용사 '가공하다'를 인정하지 않는다.

〈표〉는 '극상해야, 꺽해야'와 뜻이 비슷한 '기껏해야'를 副詞 표제어로 수록하고 '기껏하다' 같은 용언 표제어를 인정하지 않았다. '기껏하다'가 '기껏해야' 이 외의 활용형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각각 '극상하다, 꺽하다'의 유일한 활용형인 '극상해야, 꺽해야'도 副詞로 인정하고 '극상하다, 꺽하다' 같은 단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맞다.<sup>21)</sup>

이상의 論理에 따라 위의 관형사형들을 모두 冠形詞로, 부사형들을 모두 副詞로 간주하고 관련된 용언 형태들을 단어로 인정하지 않는다.<sup>22)</sup> 다만 위의 예들 중 '주된, 현행하는, 꺽어야, 늘씬하게, 발랄게, 번질나게, 뻔찔나게, 말하자면, 밤새도록'에 대해서는 덧붙일 論議가 있다.

〈표〉는 '주되다'의 문법정보란에 '주된, 주되는' 두 활용형이 가능한 것으로 기술했다. 그러나 '주되는'이라는 활용형이 쓰인 용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주되는'이 과연 가능한 활용형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 우리는 '주되는'이라는 형태를 '주된'의 誤謬로 보고 '주되다'의 가능한 활용형이 '주된' 한 가지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주된'을 冠形詞로 인정하고 '주되다'라는 단어를 인정하지 않는다.

〈표〉는 '현행하다01(現行--)'의 활용형으로 '현행하는'만 제시했다. 그런데 문

만하다."이다. 그 기본의미를 '두려워할 만하다'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21) 최형용(2016: 250-252)은 어미가 한 가지만 결합하는 불비용언들을 제시하면서 이들이 한 단어로 굳어질 가능성성이 높다고만 언급하고 여전히 용언으로 인정하고 있어서 우리와 태도가 다르다.

22) 〈고〉는 표제어 '막다르다'의 풀이 끝에 [어법]이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설명을 달았다. "[어법] '막다르다'는 활용이 '막다른'으로 제한되는 단어이다. 따라서 이 말의 '-아/-어' 활용형이 '막다라'일지 '막달라'일지 확인할 수 없다." 어미 '-은'이 붙은 활용형 '막다른'만 쓰인다고 하면서 다른 어미가 붙은 활용형이 어떤 형태일지를 궁리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일이다. '막다른'을 관형사로 인정하면 이런 함정에 빠질 일이 없다.

형정보란에 ‘【(…을)】’을 제시해 目的語를 취하는 용법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뜻풀이 “현재 행하여지고 있다. 또는 현재 행하고 있다.” 가운데 ‘현재 행하고 있다’는 他動詞 용법이므로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이런 용법이 존재한다면 ‘현행하다01’을 동사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표〉의 유일한 용례 “세무 공무원이 현행하는 조세법을 몰라서야 말이 되는가.”는 자동사 용법의 예문이다. 〈고〉도 자동사 용법에 대해 “발표자들은 현행하는 제도에 문제점이 많다는 데에 의견을 함께했다.”를 유일한 용례로 제시하고 타동사 용법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현행하다01’의 他動詞 용법이 과연 가능한지 疑問이다. 타동사 용법의 ‘현행하다01’은 말 자체의 뜻으로부터 어떻게 쓰일지 상상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현행하는 용법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 그러므로 ‘현행하다01’의 타동사 용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현행하다01’이라는 동사를 인정하지 않고 ‘현행하는’만 冠形詞로 인정하기에 이른다.

〈표〉는 ‘꺽하다’의 문법정보란에 ‘꺽해야’만 제시한 상태에서 용례에서는 ‘꺽해야’가 들어 있는 예문 둘과 ‘꺽힐’이 들어 있는 예문 하나 “그 책은 이천 원이면 꺽힐 거야.”를 제시했다. 그러나 ‘꺽힐’이 쓰인 이 예문의 문법성이 의심스럽다는 점, 〈고〉가 위의 ‘꺽하다’를 표제어로 산지 않고 부사 ‘꺽해야’만 표제어로 삼은 점을 참고하면 활용형 ‘꺽힐’은 不適格한 형태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꺽해야’를 副詞로 인정하고 ‘꺽하다’라는 동사를 인정하지 않는다.<sup>23)</sup>

〈표〉는 ‘늘씬하다01’과 ‘늘씬하다02’를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단어로 처리했다. 〈표〉의 ‘늘씬하다01’과 ‘늘씬하다02’는 각각 〈고〉의 ‘늘씬하다2’와 ‘늘씬하다1’에 대응한다.

23) 〈고〉는 부사 ‘꺽해야’를 “있는 힘껏 한다고 하여도 고작해야.”로 풀이하고 있다. 그런데 〈고〉는 여전히 동사 ‘꺽하다’를 표제어로 수록하고 그 뜻을 “(사람이나 짐승이) 힘을 다하여 한껏 외마디소리를 지르다.”로 풀이하면서 용례 “병아리가 꺽하며 쓰러졌다.”와 작은말 ‘꺽하다’를 제시했다. 부사 ‘꺽해야’와는 공시적으로 관련이 없는 동사 ‘꺽하다’를 인정한 것이다. 다만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동사 ‘꺽하다’에 달아 놓은 잘못된 문법정보 “((흔히 ‘꺽해야’의 꼴로 쓰여))”이다. 사전편찬 때 애초에 〈표〉와 같이 기술한 것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남은 오류인 듯하다.

**늘씬하다01** 『('늘씬하게' 꼴로 '때리다', '맞다' 따위의 동사와 함께 쓰여)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축 늘어져 있다.

**늘씬하다02** 『①몸이 가늘고 키가 커서 맵시가 있다. ②미끈하게 길다.

관점에 따라서는 두 '늘씬하다'를 한 단어, 즉 多義語로 볼 만도 하지만 일단 두 사전의 처리를 따라 둘을 同形語로 본다. 그렇다면 '늘씬하다01'의 활용형은 오로지 '늘씬하게'뿐이고 이 '늘씬하게'는 副詞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늘씬하다 01'을 용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발밭다'는 〈표〉에서 다음과 같이 풀이했다. (용례 생략)

〈표〉 **발-밭다** 『① ((흔히 '발밭게' 꼴로 쓰여)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재빠르게 붙잡아 이용하는 소질이 있다. ② 그때그때의 사정과 형편을 보아 적절하게 일을 처리하는 재주가 있다.

〈표〉는 두 의미소 가운데 ①에 대해서만 활용상의 제약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발밭다'는 전체적으로 '발밭게'라는 한 가지 활용형만 가진 것으로 보인다. 첫째, 두 의미소 중 ②는 활용상의 제약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표제어 '발밭다' 전체에 대한 활용정보란에 '발밭아, 발밭으니'가 제시되어야 하지만 비어 있다. 이것은 '발밭아, 발밭으니' 같은 일반적인 활용형이 부자연스러움을 암시한다. 둘째, '발밭다'의 전체 용례 5개(①에 3개, ②에 2개) 중 기본活用形을 제시한 데 불과한 "그는 재리에 발밭다"(①에 대한 용례)를 빼면 용례 4개 모두 '발밭게'만 포함하고 있다.<sup>24)</sup> 셋째, 〈고〉는 "(사람이) 기회를 재빠르게 붙잡아 잘 이용하는 소질이 있다."라는 한 의미소만 설정한 상태에서 활용정보도 표시하지 않고 용례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종합하면 '발밭다'의 활용형으로는 '발밭게'가 유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발밭게'만 副詞로 인정

24) 용례 4개는 다음과 같다.

① 애속한 살림살이가 애바르고 **발밭게** 덤빈다고 달라질 리 없을 것이다. / 돌발적인 일이 있을 때도 그들을 내세워 **발밭게** 대처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 송기숙, 『녹두 장군』

② 입 안의 혀같이 **발밭게** 일을 해 주는 손매가 아쉬워 장춘동이 집에 몇 번 사람을 보냈고… - 송기숙, 『녹두 장군』 / 변통을 부릴 때는 깔축없이 변통을 부리고 **발밭게** 일을 해야지… - 한무숙, 『돌』

하고 ‘발발다’라는 용언을 인정하지 않는다.

‘뻔질나다’는 〈표〉에 ‘뻔질나게, 뻔질나서’의 두 활용형이 제시되어 있어 위의 목록에서 빠지고 6장의 1)에서 보게 되듯이 불비용언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번질나다’와 ‘뻔찔나다’는 〈표〉에 각각 ‘번질나게’와 ‘뻔찔나게’ 하나씩만 제시되어 있으므로 위의 목록에 포함되었다. ‘번질나다, 뻔질나다, 뻔찔나다’가 이른바 子音交替라는 内的 變化(internal modification)로 서로 관련된 단어들이고 基本 意味가 모두 같으므로 이들을 함께 불비용언에 넣거나 넣지 않거나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판단할 다른 분명한 근거가 나오기 전에는 일단 사전의 기술에 따라 ‘뻔질나다’만 불비용언으로 판정한다. 그리고 ‘번질나게’와 ‘뻔찔나게’를 副詞로 인정하고 ‘번질나다, 뻔찔나다’는 단어로 인정하지 않는다.

〈표〉는 ‘말하자면’을 동사 ‘말하다’의 한 활용형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고〉는 부사로 인정하고 있다. 〈고〉의 용례에 등장하는 ‘말하자면’은 물론이고 〈표〉의 용례에 등장하는 ‘말하자면’도 모두 副詞가 제격이다. 이들은 ‘내 생각을 말하자면’,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등 동사 ‘말하다’의 활용형 ‘말하자면’과는 달리 논항도 취할 수 없고 부사의 수식도 받지 못한다.

〈고〉 말하자면 그는 오갈 데가 없어 자진해서 종으로 남아 있는 셈이었다. / 엄마와 내가 함께 쓰는 이 공책은, 말하자면 우리 둘만의 소중한 편지라고 할 수 있다. / 상선약수란 물처럼 살아가라는 말로, 말하자면 스스로 낮추어 모든 것을 이롭게 하며 살아가라는 것이다.

〈표〉 가사 형식상의 특징은 4음보의 연속체라는 점에 있다. 말하자면 행의 길이만 일정할 뿐 행의 수는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아군에겐 조직적인 방어는 고사하고 후퇴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전쟁이었다. 말하자면 그것은 전쟁이라기보다는 적측의 일방적인 살육이라는 것이 더 마땅했다. -홍성원, 『육이오』

〈표〉와 달리 〈고〉는 ‘밤새다’를 다음과 같이 활용에 제약이 없는 동사로 풀이했다. (어법과 어원은 생략)

〈고〉 밤새다 [+밤+새\_다] 〈밤새어/밤새, 밤새니〉 밤이 지나 날이 밝다. ¶나는 어제 밤새서 시험공부를 했다. / 그녀는 잠을 자지 않고 밤새도록 남편을 기다렸다. [본말]밤새우다.

〈고〉는 활용정보로 ‘밤새어/밤새, 밤새니’를 제시하고 용례에서 ‘밤새서, 밤새도록’이 들어 있는 예문을 보이고 있다. 〈표〉에서 유일하게 제시한 활용형 ‘밤새도록’이 ‘밤새다’의 기본적인 쓰임이라고 보면<sup>25)</sup> 〈고〉의 ‘밤새서’라는 활용형은不适合한 것으로 보인다. ‘밤새도록’은 ‘밤이 새도록’이 줄어서 한 단어로 굳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밤새서’는 ‘밤이 새서’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밤을 새워서’로부터 온 것으로 보아야 의미가 통한다. 그러므로 ‘밤새도록’과 ‘밤새서’를 같은 동사의 활용형들로 보는 것은 의미론적으로 부자연스럽다. 〈표〉에서 ‘새다03’을 ‘새우다01’의 非標準語로 처리한 입장에 서면 ‘밤새서’는 ‘밤 새워서’의 잘 못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sup>26)</sup> 그러므로 ‘밤새다’의 활용형은 ‘밤새도록’이 유일하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우리는 ‘밤새도록’을 副詞로 인정하고 동사 ‘밤새다’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 형태들은 冠形詞 또는 副詞로 처리한다. 따라서 이들은 불비용언과 관련이 없다.

### 관형사

강근한, 기나긴, 막다른, 머나먼, 볼며은, 볼멘, 비근한, 빛바랜, 생때같은, 소정된, 심심한, 여하한, 영광된, 자랑찬, 주된, 진정한, 철면피한, 특정한, 피맺힌, 피어린, 해묵은, 허구한 / 가경할, 가공할, 가괴할, 가교할, 오사할 / 현행하는

### 부사

때맞추어, 미구하여, 앞다투어, 연달아, 철찾아 / 각설하고, 까놓고, 무정처하고, 폐일언하고, 혀위단심하고 / 늘씬하게, 덩그렇게, 동그랗게, 때맞게, 발랄게, 번질나게, 뻔찔나게, 올목갖게, 주살나게, 참따랗게, 참땋게 / 암만해도 / 극상해야, 꺽해야 / 말하자면 / 밤새도록

### 3) 활용에 제약이 없는 경우

#### (1) 다양한 활용형이 가능한 경우

끓임없다

25) ‘밤새다’에 대한 〈표〉의 용례 4개에는 ‘밤새도록’만 들어 있다.

26) 〈표〉의 ‘새다03’의 풀이는 다음과 같다. “새다03 𩎃 → 새우다01. ※‘새다’는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자동사이므로 ‘밤을 새다’는 잘못이다.”

〈표〉는 ‘끊임없다’에 대한 문법정보란에서는 ‘끊임없는’만 제시하고 용례는 ‘끊임없는’이 들어 있는 것 4개와 ‘끊임없고’가 들어 있는 것 1개를 제시했다. 〈고〉는 ‘끊임없다’의 활용에 제약이 없는 것으로 풀이하고 용례는 ‘끊임없는’이 들어 있는 것 1개와 ‘끊임없었다’가 들어 있는 것 1개를 제시했다. 이를 종합하여 ‘끊임없다’는 ‘끊임없는’ 외에도 여러 활용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끊임없다’를 불비용언이 아닌 完備用言으로 인정한다.

### (2) 표제어를 수정하면 활용에 제약이 없는 경우

달다05. 몰라뵙다

‘달다05’의 활용형으로 거론되는 ‘달라, 다오’가 ‘주다’의 활용형들이라는 고영근(1973/1989, 1987/1989), 배주채(2009)의 연구에 따라 ‘달다05’를 불비용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몰라뵙다’는 배주채(2017)의 논의에 따라 ‘몰라뵈다’와 합쳐 한 단어 ‘몰라뵙다’로 인정한다. ‘몰라뵙다’는 ‘몰라뵙고’뿐만 아니라 ‘몰라뵙지, 몰라뵙는다, 몰라뵌, 몰라뵈면, 몰라뵈어, 몰라뵈었다’ 등 다양한 활용형을 가진 完備用言이다.

### (3) 의미소를 수정하면 활용에 제약이 없는 경우

동일하다, 모르다, 모시다, 쓸리다03, 잘다

〈표〉는 ‘동일하다’의 [2]를 “((‘동일한’ 꼴로 쓰여)) 바로 그.”로 풀이하고 [1] ①, ②와 다른 의미소로 분리하고 있다. 그러나 〈고〉는 ‘동일하다’에 대해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과, 또는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이) 구별됨이 없이 똑같다.”라는 한 의미소만 설정하고 활용상의 제약도 없는 것으로 기술했다. ‘동일하다’의 [2]에 대한 〈표〉의 예문 “동일한 문제에 대한 저의 견해는 좀 다릅니다.”의 ‘동일한’을 특별한 의미소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고〉의 태도

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동일하다’는 불비용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표〉는 ‘모르다’의 쓰임 중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등을 위해 의미소 [4]를 설정하고 주로 ‘모르게’, ‘모르는’ 꼴로 쓰인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용법은 ‘모르다’의 의미소 [1]①(사람이나 사물 따위를 알거나 이해하지 못하다.)와 다른 것으로 볼 이유가 없다. 〈고〉는 이 용법을 독립된 의미소로 설정하지 않았고 활용상의 제약을 언급하지도 않고 있다. 〈고〉의 태도가 옳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모르다’를 불비용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표〉는 ‘데리다’의 높임말로서의 ‘모시다’를 한 용법 [1]②로 분리해 세 활용형 ‘모시고, 모시려, 모셔’로만 쓰인다고 기술했다. ‘데리다’에 대해 ‘데리고, 데리려, 데려’로만 쓰인다고 기술한 것과 어울리는 기술이다. 그러나 ‘모시다’의 이 용법은 〈고〉의 첫 번째 용법 “〈높여 이르는 말로〉(사람이 손윗사람을)어떠한 곳으로 데리고 가거나 데리고 오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술하는 것이 옳다. 즉 〈고〉의 예문 “아버님을 더 큰 병원으로 모시면 어떨까?”,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인기 가수 한 분을 모셨습니다.”의 ‘모시다’와 동일한 용법이다. ‘모시다’가 이 용법으로 쓰일 때 활용형이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모시다’를 불비용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쓸리다03’에 대해 〈표〉는 ‘한꺼번에 막 몰리다’로 뜻풀이하고 “찬바람이 대합실로 쓸려 들어왔다.”, “사람들이 집 안으로 쓸려 들어왔다.”를 예문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용법은 〈고〉의 ‘쓸리다1’의 첫 번째 용법((사물이 비나 물, 바람 따위에)한데 밀려나 치워지다.)에 해당하며 활용에 제약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고〉도 활용상의 제약이 없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표〉는 ‘잘다’의 한 용법 [2]를 용례 제시 없이 “((‘잔’ 꼴로 쓰여)) 시끄럽거나 수다스러운 소리가 더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잣고 좀스럽다.”와 같이 풀이하고 있다. 이것은 아마 ‘잔말, 잔소리’ 등의 ‘잔’을 풀이한 것인 듯하다. ‘잔말, 잔소리’의 ‘잔’은 이미 이들 명사의 한 성분으로 들어가 있으므로 ‘잘다’의 풀이에 등장할 이유가 없다. 〈고〉는 이런 뜻의 용법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 〈고〉의 태도가 옳다고 판단하고 ‘잘다’를 불비용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6. 불비용언으로 인정하는 경우

### 1) 활용형이 둘 이상이지만 소수의 활용형만 가능한 경우

가로다, 관련하다, 귀담다, 난데없다, 넉넉잡다, 눈여기다, 대다01, 뎅달다, 테리다, 따르다01, 마지못하다, 마침맞다, 막되다, 막론하다, 만삭되다, 말라죽다, 머지않다, 무작정하다, 무조건하다, 벤갈다, 뻔질나다, 부치다02, 불티나다, 불박다, 비하다, 사사롭다, 서슴다, 손색없다, 수없다, 심심찮다, 앉다, 여북하다, 연잇다, 열띠다, 예기하다, 오죽하다, 우라지다, 위시하다02, 위하다01, 의하다01, 이르다02, 인하다01, 잇다01, 장난삼다, 조비비다, 출짓다, 즈음하다, 짚이다, 참다못하다, 참답다, 치다10, 크나크다, 피나다, 환언하다

이 가운데 ‘가로다, 관련하다, 머지않다, 위하다01, 크나크다’에 대해서만 論議를 덧붙인다.

‘가로다’와 관련이 있는 ‘가라사대’에 대한 〈표〉와 〈고〉의 풀이는 다음과 같다.  
(용례와 어원 생략)

〈표〉 **가라사대** 韶 (문어체로) ‘말씀하시되’의 뜻으로 쓰이는 말. ‘가로되’보다 높임의 뜻을 나타낸다.

〈고〉 **가라사대** 韶 특정한 사람을 뜻하는 명사 뒤에서 동사적으로 쓰여, ‘말씀하시되’나 ‘말씀하시기를’의 뜻을 나타내는 말. ‘가로되’를 높여 이르는 말이다. 문어체로, 남의 말이나 글을 인용할 때 쓴다.

사전에서 動詞는 당연히 어미 ‘-다’로 끝난 基本活用形을 표제어로 내세워야 한다. 그것이 국어사전의 규칙이다. 〈표〉가 이 규칙을 어긴 것은 특이한 일이다. 한편 〈고〉는 ‘가라사대’의 품사를 副詞로 표시하되 “동사적으로 쓰여”라고 부연했다. ‘가라사대’가 항상 ‘공자께서 가라사대, 장자가 가라사대’처럼 주어와 호응하는 서술어 기능을 하는 것을 의식한 것이다. 요컨대 〈표〉는 동사 ‘가라사대’의 기본활용형을 표제어로 내세우지 않은 점, 〈고〉는 부사 ‘가라사대’가 주어와 호응하여 서술어 기능을 한다는 奇異한 記述을 한 점에서 문제가 있다.<sup>27)</sup>

27) 〈고〉에 바탕을 둔 〈다음 국어사전〉(<http://dic.daum.net/index.do?dic=kor>)은 ‘가라사대’의 품사를 동사로 표시하고 있다(2017년 1월 10일 접속 결과=2018년 1월 9일 접속 결과). 종이사전 〈고〉와 품사 표시가 달라진 경위를 알 수 없으나 본문에서 지적한 문제점

아시다시피 ‘가라사대’는 15세기의 동사 ‘금다(曰)’의 활용형 ‘그른샤티’의 直系 후손이다. 동사 ‘금다’의 활용형 ‘그로더’, 골온, 그른샤티’는 후대에 각각 ‘가로되’, ‘가론’, ‘가라사대’로 형태가 바뀌었다. 두 사전은 ‘가로되’, ‘가론’의 기본활용형을 ‘가로다’로 설정하고 동사 표제어 ‘가로다’로 하여금 두 활용형을 거느리게 처리했다. 그렇다면 ‘가라사대’도 ‘가로다’의 한 활용형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첫째, ‘가라사대’의 語幹이 가지는 의미는 ‘가로되’, ‘가론’의 어간이 가지는 의미와 똑같다. 다만 ‘가라사대’는 ‘가로되’와 ‘가론’의 공통 의미에 主體敬語의 의미가 더해져 있는 것이 특별할 뿐이다. 이 주체경어의 의미는 ‘가라사대’에 숨어 있는 선어말어미 ‘-으시-’가 가진 것이다. 둘째, ‘가로다’는 ‘가라사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규칙적인 활용형 ‘가로시되’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가로시되’가 있을 자리에 ‘가라사대’가 대신 들어가 있음을 뜻한다.

결국 ‘가라사대’는 동사 ‘가로다’의 한 활용형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가로-(曰)+-으시+-으되}는 규칙적인 형태 ‘가로시되’ 대신 불규칙적인 형태 ‘가라사대’로 쓰인다고 할 수 있다.<sup>28)</sup> 이렇게 하면 ‘가라사대’가 孤兒 신세를 면하고 ‘가로다’의 가족이 늘어 더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게 된다.<sup>29)</sup>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사 ‘가로다’는 활용형이 ‘가로되’, ‘가론’, ‘가라사대’뿐이므로 不備用言의 굴레를 벗지 못한다.

‘관련하다’에 관해서는 〈표〉와 〈고〉의 처리가 서로 다르다. 〈표〉는 ‘관련하다’가 ‘…과’ 성분이나 ‘…에’ 성분을 지배한다고 표시하고 “…과”와 함께 쓰일 때는 주로 ‘관련하여’, ‘관련한’ 끌이 쓰인다”라는 문법정보를 주었다. 이것은 ‘관련하다’가 ‘…에’ 성분을 논항으로 할 때는 完備用言이고 ‘과’ 성분을 논항으로 할 때는 不備用言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고〉는 ‘여불규칙’의 표시함으로써 完備用

---

을 고려한 의도적 수정으로 추측된다. 그렇지만 품사를 동사로 바꿔 표시함으로써 〈다음 국어사전〉도 〈표〉와 동일한 문제를 안게 된다. 나아가 “동사적으로 쓰여”라는 불필요한 언급을 그대로 둔 것은 그것이 정교한 수정이 아니었음을 증명한다.

28) 홍윤표(1977)은 중세국어의 “골다”에서 온 ‘가로다’가 현대국어 문어에서 ‘가로대(가로되), 가라사대’의 활용형으로만 남아 있다고 했고, 김영욱(1994)은 “역사적 잔존형태(화석형태)”에 가까운 ‘가로다’의 활용형으로 ‘가로되’, ‘가론’, ‘가라사대’를 들었다. 그러나 이 두 연구는 우리가 본문에서 논의한 ‘가라사대’의 형태소분석의 문제를 논하지 않았다.

29) ‘가론’이라는 활용형의 공시적 인정 여부, 형태소분석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 하나 우선은 두 사전에 따라 ‘가로다’의 한 활용형으로 ‘가론’을 인정해 둔다.

언인 것으로 기술했다. 그러나 두 사전의 여러 예문에 쓰인 활용형은 ‘관련해/관련하여, 관련해서, 관련한’에 한정된다. 실제로 ‘관련하다’의 가능한 활용형은 이 세 가지뿐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련하다’를 不備用言으로 처리한다.

〈표〉의 ‘멀다02’의 뜻풀이 끝에 다음과 같은 설명이 달려 있다.

※ ‘머지않다’는 시간적인 개념을 나타내고 ‘멀지 않다’는 공간적인 개념을 나타낸다 ‘머지않다’는 한 단어로 ‘봄이 머지않았다’와 같이 붙여 쓰지만 ‘멀지 않다’는 한 단어가 아니므로 ‘여기에서 학교까지는 멀지 않다’와 같이 띄어 쓴다.

이 설명에 따르면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음을 뜻하는 형용사 ‘머지 않다’가 ‘머지않았다’ 같은 활용형으로도 쓰인다는 뜻이다. 그러나 〈표〉의 형용사 표제어 ‘머지않다’의 풀이에서는 다음과 같이 ‘머지않아’를 副詞로 인정해도 손색 없을 용례만 보이고 있다.

〈표〉 **머지-않다** [--안타] 圜 (주로 ‘머지않아’ 꼴로 쓰여) 시간적으로 멀지 않다. ¶**머지않아** 소식이 올 것이다. / **머지않아** 사실이 밝혀질 것이다. / 수위가 점점 차올라 **머지않아** 강이 범람할 것이다.

한편 〈고〉는 副詞 ‘머지않아’도 인정하고 形容詞 ‘머지않다’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머지않다’의 가능한 활용형으로 ‘머지않아, 머지않았다’ 둘을 제시하고 있다(용례에는 ‘머지않아서’도 등장한다).

〈표〉와 〈고〉의 기술을 종합하면, 부사 ‘머지않아’를 인정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형용사 ‘머지않다’가 ‘머지않은 미래에, 봄이 머지않으니’ 등 다른 활용형으로도 쓰일 것 같기도 하며, 형용사 ‘머지않다’가 구 ‘멀지 않다’와 결국 같은 말인 듯 느껴지기도 하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우선 〈표〉와 〈고〉가 제한적 활용형으로 명시한 ‘머지않아, 머지않았다’를 중시하여 형용사 ‘머지않다’가 不備用言인 것으로 간주하고 부사 ‘머지않아’를 인정하지 않는다. ‘위하다01’에 대한 〈표〉의 풀이는 다음과 같다.

- 〈표〉 위-하다01 (爲--) 困 【…을】 ① 이롭게 하거나 돋다.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다 / 다 너를 위해 하는 말이다. / 귀국의 황제께서도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각별히 힘을 기울여 주시는 게 긴요하겠소. - 유주현, 『대한 제국』 / 다만 나라를 위하여 싸우고, 겨레를 위하여 바다를 지키는 것이언만…. - 박종화, 『임진왜란』
- ② 물건이나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다. ¶그는 강아지를 자식처럼 위했다. / 그녀는 부모를 제 몸처럼 위하는 효부였다. / 어찌나 얼고 떠는지 상전을 위하는 시종의 충성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 김유정, 『아기』
- ③ 【-기】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다. ¶시장 조사를 위한 현지 출장 / 김 선생님은 후진 양성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 / 그는 출세를 위해서는 뭐든지 했다. // 집을 새로 칠하기 위해 물건을 정리했다. / 그 잔뿌리들은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 감싸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했다. - 김용성, 『도둑 일기』 / 의도적인 새침함은 그녀의 현재의 삶을 꾸려 가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 김원우, 『침승의 시간』

〈표〉는 ‘위하다01’의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정보를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용례를 관찰하면 의미소 ②만 完備用言의 용법이고 의미소 ①과 ③은 不備用言 용법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의미소 ①, ③에 대해 가능한 활용형은 ‘위해, 위해서, 위한’의 3개뿐이다. 〈고〉 역시 ‘위하다’의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기술을 하지 않고 있지만 용례를 관찰하면 네 의미소 중 ①, ②는 활용형이 ‘위해, 위해서, 위한’ 3개뿐임을 알 수 있다. (〈고〉의 의미소 ①과 ②는 각각 〈표〉의 의미소 ③과 ①에 대응한다.)

- 〈고〉 위하다 (爲--) 困 【…을】 ① [(명)이 (명)을] (사람이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다.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요즘 건강을 위하여 매일 등산을 하신다. / 우리 회사에서는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재판이라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 공장 터 확보와 광산 개발을 위한 산림 훼손이 줄어든 대신 골프장 건설에 따른 산림 파괴가 크게 늘고 있다.
- ② (기본의미) [(명)이 (명)을] (사람이 무엇을) 이롭게 하거나 잘되게 하다. ¶국민을 위한 정치 / 사장은 회사를 위한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 동화는 어린아이들의 감성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하다01’은 意味素 ①, ③이 不備用言 용법을 가지고 意味素 ②가 完備用言 용법을 가진 것으로 판정한다. 이것은 多義用言이 가진 여러 의미소 중

일부는 활용계열이 완비되어 있고 일부는 활용계열이 불비한 경우이다. 이와 같이 일부 의미소만 활용계열이 불비한 용언을 部分 不備用言이라 부를 수 있다. 한편 한 용언이 가진 모든 의미소의 활용계열이 불비하다면 그것은 完全 不備用言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위하다01’는 부분 불비용언이 된다.

‘크나크다’에 대해 〈표〉는 활용상의 제약을 말하지 않고 있으나 용례에서는 ‘크나큰, 크나크신’의 두 활용형만 보이고 있다. 〈고〉 역시 활용상의 제약을 말하지 않고 있으나 용례에서는 ‘크나큰, 크나커’의 두 활용형만 보이고 있다.

〈표〉의 용례: 크나큰 사전 / 크나큰 재산 / 크나큰 감동 / 크나큰 실수 / 크나큰 아쉬움 / 크나큰 충격 / 미물 인생에 내리신 부처님의 크나크신 차비에 눈물짓고… - 박경리, 『토지』

〈고〉의 용례: 그녀가 보내온 편지는 군대에 있는 나에게 크나큰 위로가 되었다. / 부모님의 은혜는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나커 다 갚을 수 없다.

〈고〉의 용례 중 활용형 ‘크나커’는 作爲的인 형태인 듯 보인다. ‘크나크다’와 조어구조가 같은 ‘기나길다, 머나멀다’는 5장의 2)의 (2)에서 본 바와 같이 각각 관형사형 ‘기나긴, 머나면’으로만 쓰여 이들을 용언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각 관형사 ‘기나긴, 머나면’으로 인정했다. ‘크나크다’도 주로 관형사형 ‘크나큰’으로만 쓰이는 것은 ‘기나긴, 머나면’과 같다. 다만 ‘크나크신 은혜’와 같이 主體敬語의 의미를 가미한 관형사형 ‘크나크신’이 쓰이는 점이 ‘기나긴, 머나면’과 다른 점이다. 그렇더라도 ‘크나커’와 같은 활용형은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외의 다른 활용형이 가능한지도 분명치 않다. 이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일단 ‘크나크다’의 활용형으로 ‘크나큰, 크나크신’을 인정하고 ‘크나크다’를 不備用言으로 판정해 두기로 한다.

## 2) 활용형이 하나이지만 논항을 지배하는 경우

가지다(...을), 껴묻다(...에), 더불다(...과, ...으로), 두다01(...을, -ㄴ지를), 따르다01(...에), 물론하다(...을, -음을, -ㄴ지를), 반하다03(...에), 배다르다(...과), 배꼽다(...으로, ...을), 보다01(...을), 불구하고다02(...에, -음에), 불문곡절하다(...을), 불문곡직하다(...을), 앞지르다(...에, ...보다, ...을), 열추잡다(...을), 엇갈다(...과, ...을 ...과), 제하다04(...에, ...을), 주요하다(...에/에게)

위의 용언들은 각각 괄호 안에 표시한 성분을 論項으로 요구한다. 논항을 요구하는 문법적 특성 때문에 이들이 활용형을 하나만 가지고 있지만 모두 용언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主語를 논항으로 요구하는 용언은 위의 목록에 없다. ‘앞다투어/앞다퉈’는 〈표〉, 〈고〉의 예문들에서 주어를 논항으로 요구하는 동사인 듯 보이기도 한다.

〈표〉 신약 개발에 대기업들이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표〉 동네 부잣집에서 방아를 짓거나 보리밭에 김매는 날이면 너도나도 앞다퉈 삽꾼으로 나섰다. - 현기영, 『변방에 우짖는 새』

〈고〉 장이 서는 날이면 동네 주민들이 앞다투어 장으로 모여들었다.

〈고〉 많은 유명인사들이 앞다퉈 그 학교에 아이들을 입학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앞다투어/앞다퉈’의 주어인 듯 보이는 성분들의 진짜 서술어는 뒤따르는 ‘뛰어들고 있다’, ‘나섰다’, ‘모여들었다’, ‘입학시키려고’, ‘노력하였다’이고 ‘앞다투어/앞다퉈’는 이들 서술어를 수식하는 부사라고 분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앞다투어/앞다퉈’가 주어를 논항으로 요구하는 불비용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保留한다.

다음 용언들은 6장의 1)에서 활용형이 둘 이상이라는 이유로 이미 불비용언으로 인정받았다. 그런데 각각 괄호 안에 표시한 성분을 論項으로 요구한다. 그러므로 이중으로 불비용언 자격을 지닌 셈이다.

관련하다(...에, ...과), 대다01(...에/에게)(...과 ...을), 테리다(...을), 따르다01(...에), 막론하다(...을), 부치다02(...에), 불박다(...에 ...을), 비하다(...에), 서슴다(...을, -기를), 연잇다(...과, ...에, ...을), 예기하다(...을), 위시하다02(...을), 의하다01(...에), 인하다01(...으로), 잇다01(...에), 즈음하다(...에, ...을), 치다10(...으로), 환연하다(...을)

### 3) 활용형이 하나이지만 ‘-이’계 파생부사와 관련된 경우

간단없다(간단없이), 갈데없다(갈데없이), 편하다(편히), 더없다(더없이), 무단하다(무단히), 수많다(수많이), 아낌없다(아낌없이), 한없다(한없이)

‘-이’계 파생부사, 즉 접미사 ‘-이’나 ‘-히’가 붙은 부사와 관련된 형용사는 그 것이 활용형을 하나만 가지고 있더라도 형용사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간단없다’를 形容詞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 말에 접미사 ‘-이’가 결합한 파생부사 ‘간단없이’의 造語法을 기술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간단없다’를 형용사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표〉는 이러한 조어적 관련성을 보이기 위해 파생부사 ‘간단없이’를 主標題語 ‘간단없다’ 밑에 副標題語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표〉는 어근 ‘괜’, ‘무단’에 접미사 ‘-하다’가 붙은 형용사가 각각 ‘괜하다’, ‘무단하다’이고 접미사 ‘-히’가 붙은 부사가 각각 ‘괜히’, ‘무단히’인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만약 관형사 ‘괜한’, ‘무단한’만 인정하고 형용사 ‘괜하다’, ‘무단하다’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괜한’, ‘무단한’이 어근에 접미사 ‘-한’이 붙은 것으로 기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접미사 ‘-한’를 설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造語法 기술이라 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표〉처럼 ‘괜하다’, ‘무단하다’를 形容詞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30)</sup> 그러면 ‘괜하다’, ‘무단하다’는 不備用言이 된다.

다음 용언들은 6장의 1)에서 활용형이 둘 이상이라는 이유로 이미 불비용언으로 인정받았다. 그런데 각각 괄호 안에 제시한 派生副詞의 존재 때문에 다시 한번 불비용언의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난데없다(난데없이), 사사롭다(사사로이), 손색없다(손색없이), 수없다(수없이)

#### 4) 활용형이 하나이지만 다른 의미소가 용언인 경우

가지다, 두다03, 냉그렇다.<sup>31)</sup> 덮어놓다, 따르다01, 말라비틀어지다, 말라빠지다, 벼젓하다, 보다01, 비하다, 출잡다, 지나가다, 피비리다, 허옇다

30) 〈표〉의 기술과 달리 ‘괜히’, ‘무단히’의 조어구조를 각각 ‘괜하-이’, ‘무단하-이’로 볼 수도 있다. 어느 쪽 견해를 따르든 ‘괜하다’, ‘무단하다’를 형용사로 인정하게 된다는 점만 우선 지적해 두고자 한다.

31) 최형용(2016: 251)은 ‘냉그렇다’의 가능한 활용형을 ‘냉그랗게, 냉그라니’의 2개로 보고 이들이 각각 어미 ‘-게’와 ‘-니’를 가진 것으로 기술했다. 〈표〉에 따르면 ‘냉그라니’의 ‘-니’는 방언 어미이지 표준어 어미가 아니다. ‘냉그라니’와 의미가 비슷하고 모음교체 관계에 있는 ‘냉그러니’를 〈표〉는 부사로 설정했다. 결국 ‘냉그라니’는 표준어에서 ‘냉그렇다’의

이들은 多義用言으로서 의미소에 따라 활용계열이 완비되어 있거나 불비한 部分 不備用言이다. 이 가운데 ‘비하다’에 대한 <표>의 풀이는 다음과 같다.

- 비-하다** (比--) [비 : --] ① 【…을 …에/에게】 【…을 …과】 사물 따위를 다른 것에 비교하거나 견주다. ¶어머니의 사랑을 어디에다 비하랴. / 옛날부터 내외 간 금실 좋은 것을 원양새에 비하지 않았어요. - 박종화, 『다정불심』 || 아내가 직접 만들어 준 이 옷을 무엇과 비하겠습니까?  
 ② 【…에】 ((‘-에 비하여’, ‘-에 비해(서)’, ‘-에 비하면’ 구성으로 쓰여)) ‘비교’의 뜻을 나타낸다. ¶다른 작품에 비하면 생산비가 덜 듦다. / 그는 사진에 비해 서 실물이 훨씬 더 좋은 인상을 풍겼다.  
 ③ ((‘비하건대’ 꼴로 쓰여)) ‘견주어 말한다면’ 또는 ‘비유하자면’의 뜻을 나타낸다. ¶낭비가 심한 그에게 돈을 주는 것은, 비하건대 밑 빠진 독에 물 끊기다.

의미소 ①은 완비용언 용법이다. 의미소 ②는 6장의 1)에서 활용형이 둘 이상 ('비해, 비해서, 비하면')이라는 이유로 이미 불비용언 용법으로 인정받았고 6장의 2)에서 ‘…에’ 논항을 지배하므로 또 불비용언 용법으로 인정받았다. 이제 ‘비하건대’의 꼴로 쓰이는 意味素 ③은 가능한 활용형이 하나이지만 활용계열이 완비된 ① 및 활용계열이 불비한 ②와 동일한 용언에 속한다는 사실 덕분에 不備用言의 일원으로 인정받게 된다.

## 7. 마무리

이 연구는 국어사전의 기술을 바탕으로 불비용언을 망라해 수집하는 작업의 試論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기계적으로 불비용언을 추출하고 그 결과를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의 기술 등을 참고하여 검토하되 활용형이 둘 이상이지만 소수에 불과한 용언들을 불비용언으로 판정했다. 활용형이 하나인 것도 論項을 요구하거나 ‘-이’계 접미사가 붙은 派生副詞와 관련되거나 多義用言이면 불비용

언으로 판정했다. 그러나 관형사형이나 부사형을 하나만 가진 것은 불비용언이 아닌 冠形詞, 副詞로 판정했다. 그 결과 다음 88개가 不備用言으로 확인되었다.

### 〈표 3〉 불비용언 목록

가로다 가지다 간단없다 갈데없다 관련하다 관하다02 웬하다 귀담다 난데없다 넉넉잡다 눈여기다
다직하다 대다01 대하다02 냉그렇다 더불다 덩달다 테리다 두다03 따르다01 때아니다 마지못하다
마침맞다 막되다 막론하다 만삭되다 말라비틀어지다 말라빠지다 말라죽다 머지않다 무작정하다
무조건하다 물론하다 반하다03 배다르다 배꼽다 버젓하다 번갈다 보다01 부치다02 불구하다02
불문곡절하다 불문곡직하다 불티나다 불박다 비하다 뻔질나다 사사롭다 서슴다 손색없다 수많다 수없다
심심찮다 쓸리다03 아낌없다 앉다 앞지르다 열추잡다 엇갈다 여복하다 연잇다 옆띠다
예기하다 오죽하다 우라지다 위시하다02 위하다01 의하다01 이르다02 인하다01 잇다01 장난삼다 제하다04 조비비다 주요하다 줄잡다 줄짓다 즈음하다 지나가다 짚이다 참다못하다 참답다 치다10 크나크다 꽤나다 꾀비리다 허옇다 환연하다

1장에서 기존 연구의 검토 결과 일단 불비용언으로 인정한 것들 70개 가운데 다음과 같이 49개는 불비용언으로 인정하고 21개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존 연구에 등장하지 않은 39개를 새롭게 불비용언으로 인정했다.

#### 기존 연구대로 불비용언으로 인정한 것(49개)

가로다 가지다 관하다02 웬하다 귀담다 넉넉잡다 눈여기다 대하다02 냉그렇다 더불다 테리다 두다03 따르다01 마지못하다 막되다 막론하다 만삭되다 말라빠지다 말라죽다 머지않다 반하다03 번갈다 보다01 불구하다02 불박다 비하다 서슴다 수많다 수없다 아낌없다 엇갈다 연달다 옆띠다 우라지다 위하다01 의하다01 인하다01 장난삼다 조비비다 줄잡다 줄짓다 즈음하다 지나가다 짚이다 참다못하다 크나크다 꽤일언하다 꽤나다 꾀비리다

#### 기존 연구와 달리 불비용언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21개)

까놓다 꺽하다 더없다 덮어놓다 때맞다 막다르다 머나멜다 발발다 생때같다 암만하다 입바르다 자랑차다 주되다 진정하다 참따랗다 참땋다 철면피하다 철찾다 해묵다 허구하다 허위단심하다

#### 새롭게 불비용언으로 인정한 것(39개)

간단없다 갈데없다 관련하다 난데없다 다직하다 대다01 덩달다 때아니다 마침맞다 무작정하다 무조건하다 물론하다 배다르다 배꼽다 버젓하다 부치다02 불문곡절하다 불문곡직하다 불티나다 뻔질나다 사사롭다 손색없다 심심찮다 쓸리다03

않다 앞지르다 얼추잡다 여북하다 연잇다 예기하다 오죽하다 위시하다02 이르다  
02 잇다01 제하다04 참답다 치다10 허옇다 환언하다

〈표 3〉에 제시한 不備用言 目錄은 결코 完全하지 않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번 작업의 근거로 삼은 國語辭典들의 記述이 완전하지 않은 데 있다. 첫째, 〈표 준국어대사전〉에서 모든 불비용언에 대해 문법정보란에서 “((… 꿀로 쓰여))”라는 정보를 주지는 않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불비용언으로 보아 온 ‘위하다’를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이 불비용언으로 기술하지 않고 있지만 검토 결과 불비용언으로 보는 것이 옳다. 둘째, 〈표준국어대사전〉의 ‘자세히 찾기’에서 문법정보란에 ‘꿀’을 포함한 표제어를 검색한 결과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데리다’는 문법정보란에 “((‘데리고’, ‘데리려’, ‘데려’ 꿀로 쓰여))”로 표시되어 있지만 위의 검색 결과에 빠져 있다. 따라서 실제 불비용언의 수는 〈표 3〉의 88개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표 3〉보다 더 정확하고 완비된 불비용언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다음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 (1) 활용형처럼 보이는 어떤 형태가 활용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문제
- (2) 한 용언의 가능한 활용형과 불가능한 활용형을 판단하는 문제
- (3) 두 활용형이 같은 용언에 속하는지 다른 용언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문제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서 國語辭典의 記述도 研究者の 直觀도 완전히 정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판단의 정확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불비용언과 관련해서 불비용언의 완비된 목록을 작성하는 작업 외에 불비용언의 형성 요인과 형성 과정, 불비용언이 문법체계와 어휘체계에서 가지는 역할과 위상 등 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탐구도 앞으로의 연구과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주제어 : 불비용언, 불비동사, 불비형용사, 활용계열, 활용형, 표준국어대사전

투고일(2018. 2. 6), 심사시작일(2018. 2. 19), 심사완료일(2018. 3. 7)

### 참고문헌

- 고영근(1973), 「현대국어의 종결어미에 대한 구조적 연구」『어학연구』 10-1[고영근(1989)에 재수록].
- \_\_\_\_\_ (1987), 「보충법과 불완전계열의 문제」『어학연구』 23-3[고영근(1989)에 재수록].
- \_\_\_\_\_ (1989), 『국어형태론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영욱(1994), 「불완전계열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국어학』 56.
- 남기심 · 고영근(1985), 『표준 국어문법론』, 탑출판사(개정판, 1993).
- 배주채(2009), 「‘달라, 다오’의 어휘론」『국어학』 56.
- \_\_\_\_\_ (2017), 「교체의 개념과 조건」『국어학』 81.
- 최현배(1937), 『우리말본』, 정음사(수정 5판, 1971).
- 최형용(2016), 『한국어 형태론』, 역락.
- 한송화(1997), 「활용에 제약이 있는 동사의 사전적 처리」『사전편찬학연구』 7.
- 홍윤표(1977), 「불구동사에 대하여」『이승녕선생고회기념 국어국문학논총』, 탑출판사.

### 〈Abstract〉

For making a full list of defective verbs/adjectives in Korean

Bae Juchae \*

Korean is said to have some defective verbs/adjectives, but the full list has not been presented. Unabridged Korean dictionaries can help make the full list of defective verbs/adjectives.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2008) gives the constraints on the conjugation of a defective verb/adjective in a fixed form, i.e. “used in the form of ...”. So we can find all of the defective verbs/adjectives in the web-based dictionary by searching for entries with *kkol* ‘form’ in their grammatical information. The search results are 145 entries. We recognized a defective verb/adjective if it has two or more but not many conjugational forms. The final list of defective verbs/adjectives consists of 88 words. But it is to be improved since it is not always clear which conjugational forms a verb/adjective can have.

**Key Words :** defective verb, defective adjective, conjugational paradigm, conjugational form,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